

# 주체건축창조에서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

류 충 성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단위로 하여 생활하며 시대와 함께 산다. 아름다운 건축은 민족의 구미에도 맞고 현대적미감에도 맞는 건축이다. 건축은 민족의 생활감정과 생활풍습, 정서와 취미, 높아지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과정을 통하여 보다 아름답게 변화발전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하는것은 새로운 시대, 새 생활의 요구에 맞는 주체건축창조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원칙이다.》

(《김정일선집》 증보판 제14권 404페이지)

인민대중이 력사와 사회의 주인으로 등장한 새로운 사회가 세워졌다고 하여 건축창조에서 낡은 사회의 유물인 민족건축유산을 완전히 무시해도 안되며 반대로 한민족이 한령토안에서 수천년을 살아오는 과정에 형성된 자기의 생활풍습과 생활감정, 취미 같은것이 공고하게 계승된다고 하여 새로운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면서 민족건축유산만을 답습해도 안된다.

건축창조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면서 현대성을 구현하여야 인민이 좋아하고 시대의 요구에 맞는 건축을 창조할수 있다.

민족적특성은 민족건축의 특성을 조건지어주며 그 품격과 형식을 규정하여준다.

민족의 고유한 생활풍습과 생활감정, 취미 같은것이 상대적공고성을 띠는것처럼 민족적특성도 상대적공고성을 가진다.

건축의 민족적특성은 상대적공고성을 가지면서도 시대의 변화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면서 새로운것으로 보충된다.

시대가 발전하면 민족의 사상감정과 생활방식, 미적정서와 취미를 비롯한 민족적특성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변화발전하여

보다 더 좋은 특성이 새롭게 형성된다.

현대성은 현대건축의 특성을 조건지어주며 규정짓는다.

새시대 인간의 요구를 반영하고 그들의 시대적미감과 현대문명생활에 맞게 창조된 건축이 바로 현대성을 구현한 건축이다.

건축에서 현대성은 민족적특성에 토대한다. 민족적특성을 살린 현대적인 건축이야말로 진실로 현대성이 구현된 건축이라고 말할수 있다.

주체건축창조에서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무엇보다먼저 건축창조에서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리는것이다.

건축창조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건축유산을 옹계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민족건축유산을 옹계 계승하는것은 민족적특성을 살리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모든 민족은 한지역, 한령토, 한나라안에서 오래동안 살아오면서 자기민족의 생활풍습, 사상감정, 미적취미와 정서에 맞는 고유한 건축을 창조하였으며 민족건축의 우수한 전통을 마련하였다. 민족건축유산은 민족의 귀중한 재보이며 건축을 우리 식으로 창조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

민족유산을 계승발전시킨다는것은 오랜 력사적시기를 내려오면서 보존되어온 건축유산가운데서 지금까지도 자기 인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우수한 유산인 민족건축전통을 계승발전시킨다는것을 의미한다. 민족적인 건축전통은 고정불변한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색을 보존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화발전하며 새것의 섭취와 개조를 전제로 하고있다. 오늘까지 계승되어온

민족적인 건축전통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개척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한 가치있는 건축구성요소와 고유한 장식이다.

민족건축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복고주의와 민족허무주의를 철저히 경계하여야 한다.

복고주의는 건축의 계급적성격과 사회적성격을 무시하고 지난날의것을 덮어놓고 좋다고 하며 민족허무주의는 자기의것을 덮어놓고 나쁘고 남의것은 덮어놓고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숭상하고 찬미한다. 복고주의를 허용하면 지난날의 온갖 뒤떨어진 낡은 건축술이 되살아나게 되며 건축창조에서 로동계급적선이 흐려지게 되고 혁명적인 건축을 창조할수 없다. 반대로 민족허무주의를 허용하면 남의 건축을 우상화하게 되고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건 안맞건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모방하게 되며 결국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생겨나 건축창조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잃게 된다.

우리 나라의 민족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데서 특별히 중요한것은 해방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조된 주체적인 건축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을 창시하시고 해방후 여러 혁명단계에서 그것을 구현하여 수천수만의 훌륭한 건축물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시였으며 건축발전력사상 류례없는 성과를 이룩하여놓으시였으며 주체건축의 자랑찬 전통을 마련하시였다. 이것은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이룩한 성과와는 대비할수 없는 위대한 업적이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민족건축전통을 빛나게 계승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건축창조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또한 민족건축형식을 잘 살려나가야 한다.

민족건축형식을 살려나가는 과정은 곧

민족적특성을 살려나가는 과정이다. 민족건축형식은 오랜 력사적과정을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화된것으로서 거기에는 해당민족의 고유한 심리정서적특징과 생활풍습, 생활감정, 기술과 재능이 집중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자기 민족이 창조한 귀중한 건축유산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 변화된 인민대중의 생활상요구에 맞게 개조하고 발전시켜야 민족적이며 현대적인 건축을 창조할수 있다. 민족건축형식을 살리는것은 우리 나라와 같이 전후 건설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우리는 지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시기미체의 야수적만행에 의하여 해방후 땀흘려 건설한것은 물론 선조들이 창조한 모든것이 불타고 파괴되어 재더미를 헤치며 건설을 새로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우리의 모든 도시를 조선의 도시, 우리 나라 사회주의금수강산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도시로 건설할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민족건축을 적극 살리는 동시에 현대적인 조선식건물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도시를 건설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도시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에 전통적인 조선식건물을 배치하도록 하시였으며 비례, 색소, 척도를 비롯한 모든 조화수단을 조선사람의 미적감정과 구미에 맞게 해결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와 함께 선조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는 민족건축유산을 귀중히 취급하도록 하시였으며 도시형성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시였다.

평양시를 비롯한 우리 나라 도시들이 건설력사가 길지 않지만 오랜 력사의 도시라는 느낌을 강하게 안겨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시대의 변화와 함께 달라지는 인민의 생활감정과 생활풍습은 어디까지나 과거의것을 바탕으로 삼기때문에 새로운 시대의 건축예술도 과거의것, 민족건

축유산을 계승함으로써만 민족적특성이 잘 살아날수 있다.

주체건축창조에서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결합시키는데서 나서는 기본요구는 다음으로 현대성을 옹계 구현하는것이다.

건축창조에서 민족적특성을 살린다고 하여 현대성을 무시하면 안된다. 현대성을 무시하면 복고주의적요유를 범하게 된다.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버리고 민족의 우수한 건축전통에 토대하여 현대성을 철저히 구현하여야 한다. 건축창조에서 현대성을 구현하는 과정은 인민들의 생활수습과 생활감정, 미적요구를 변화발전하는 현실속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하고 그에 맞는 새롭고 특색있는 건축을 창조하는 과정이다. 물론 건축에는 력사적으로 형성발전되어온 자기 민족의 고유한 형식이 있다. 그 형식이 오랜 기간 내려오면서 훌륭히 다듬어진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리상적인것으로 절대화하여서는 안된다. 지난 시대에 다듬어진 형식은 해당 시대에는 완성된것으로 될수 있으나 변화된 새로운 시대에 와서는 완성된것으로 될수 없다.

5월1일경기장과 동평양대극장의 건물형식은 조선식건물의 형식을 본딴것도 아니며 다른 나라에 있는 건물의 형식을 모방한것도 아니다. 이 건축물의 형식은 지난 시대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새로운 주체시대의 시대적요구와 우리 인민의 사상미학적요구, 아름다운 자연지리적조건을 반영하고있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형식이다. 이런것으로 하여 이 건축물은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으며 시대의 자랑으로 불리우고있다.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대적인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건축창조에서 현대성의 구현은 도시형성으로부터 개별적인 건축대상에 이르기까

지 건축창조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비약, 일대 변혁을 요구한다. 건설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새로운 성과와 앞선 경험을 적극 받아들이야 이 요구를 원만히 해결할수 있다.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아무리 새롭고 현대적인 건축을 설계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로 꽃피울수 없다. 새로운 건설재료와 구조도식이 나오고 시공기술이 고도로 발전하면 건축가가 자기의 창조적기량을 마음껏 발휘할수 있으며 설계가 아무리 복잡하고 다양하여도 쉽게 실현할수 있다.

현대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또한 지난 시기의 건축물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져야 한다.

민족건축은 민족의 장구한 력사를 직관적으로 보여주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건축창조에서 현대성을 구현한다고 하여 민족의 오랜 력사를 보여주는 건축물을 현대적으로 개조하여서는 안된다. 지난 시기의 건축물이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하여 그것을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여도 시대감이 날수 없으며 력사적깊이, 민족의 장구한 력사를 보여줄수 없고 민족적공지와 자부심을 높여주는데도 일정한 저해를 줄수 있다. 옛 건축물이 있다고 하여 현대성을 구현하지 못한다는것은 없다. 오히려 옛 건축물이 있을수록 현대성이 더욱 부각되게 된다.

우리는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을 옹계 결합시킬데 대한 주체건축창작원칙과 그 기본요구를 똑똑히 알고 건축창조활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우리의 건축을 선군시대의 높은 새로운 경지에로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 그리하여 민족적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더 많이 일떠세움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회주의문명국건설구상을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